

韓國에서의 中國 古典 譯註의 現況과 문제점*

임동석**

目 录

- I. 引言
- II. 通譯·翻譯·諺解·譯註
- III. 韓國 歷代 中國 古典 譯註의 흐름
- IV. 譯註 作業의 現況과 문제들
- V. 「中國思想百選」 出刊 緣起
- VI. 叢書 執筆의 方向과 內容
- VII. 結言

I. 引言

民族(種族)의 구분 기준에는 당연히 언어의 相異한가의 與否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로 중국 한어와 언어계통이 달랐으며 이에 일찍부터 중국과의 외교, 소통 등에 자연스럽게 중간 통번역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中原과 四方(四夷) 사이에는 각기 통역 방법을 두고 달리 의미와 용어를 설정하였다.¹⁾

특히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은 일찍부터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 이 論文은 2011년 1월 8일 北京大學 外國語大學 朝鮮(韓國)言語文化學部和 北京大學 朝鮮文化研究所 주최의 「中韓翻譯學·翻譯教育 國際學術會議」 “中韓翻譯學·翻譯教學研究的新視野”에서 口頭로 발표된 것을 修正 補完한 것임.

** 건국대 교수

1) 《禮記》 王制篇에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 達其志, 通其欲: 東方曰寄, 南方曰象, 西方曰狄鞮, 北方曰譯”이라 함.

우리는 15세기 이전까지는 문자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자가 있기 전에는 초보적 吏讀, 鄉札, 角筆, 標點, 懸吐 등이 있었을 뿐이며 그 외에 중국 한자의 고유한 뜻글자 기능을 최대한 살려 訓讀과 音讀의 두 가지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였다.²⁾ 그러나 실제 중국 古代 典籍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視覺的, 聽覺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지도 명확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言語를 이용한 通譯, 文字를 이용한 翻譯(譯註)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중국 고전 역주의 여러 현황 및 필자가 작업해온 「中國思想百選」 80여 종 120여책(권)의 역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리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II. 通譯 · 翻譯 · 諺解 · 譯註

중국어로는 ‘번역’이 ‘통역’과 ‘번역’, 즉 ‘통번역’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 한국어에서는 ‘통역’과 ‘번역’은 구분되고 있다. 즉 통역은 時空이 제한된 상황에서 상이한 두 언어 사이에 말(언어)로 소통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직접 마주하거나 혹은 지금은 발달한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으로 현장감 있는 聽覺과 口語를 사용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번역은 시공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시간적으로는 고대 전적(문헌, 문학작품, 기록물 등)을 현대 의미로 옮기거나 타지역 자료를 뜻이 통하도록 교체함을 말한다. 따라서 통역은 언어위주이며 번역은 문자위주라 할 수 있다.

그 중 통역의 경우,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 혹은 이민족과의 외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기구를 갖추었음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즉 新羅 제도를 이은 後三國 弓裔의 ‘史臺’라는 기구가 최초이며 고려시대에는 通文館, 吏學都監, 司譯院 등이 있었고³⁾ 朝鮮시대에는 이를 이

2) 鄉歌의 표기와 그 밖에 阿斯達, 固麻那里, 神市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어받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완전한 司譯院과 承文院을 두어 譯官과 吏文官을 양성하고 교육하였다.⁴⁾ 특히 조선은 ‘訓民正音’이라는 과학적인 표음문자를 창제함으로써 통역과 번역을 위한 완비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건국과 동시에 삼대국시를 기치로 하여, 그 중 사대교린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四學⁵⁾을 두었으며, 과거시험의 잡과에는 譯科를 두어 인재를 등용하였다.⁶⁾ 이러한 통역관의 역학 관련 발전은 곧이어 외국어 구사를 위한 教材(漢語의 경우 《老乞大》, 《朴通事》류)와 工具書(《譯語類解》, 《四聲通考》, 《四聲通解》, 《語錄解》 등)의 編輯과 編纂, 諺解, 音注로 이어져 우리나라 고유의 ‘譯學’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맥을 이루었으며 이는 舊韓末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

다음으로 번역의 경우,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는 사실 불가능하였다. 초보적으로 우리말을 한자로써 음사(音寫)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고유한 우리 문자가 창제되자 곧바로 우리의 책⁸⁾을 저술하기도 하고 佛經⁹⁾과 중국의 經書를 諺解하기도 하고, 兵法書¹⁰⁾와 譯學用書는 물론, 文學, 醫藥, 法律, 音韻 등에 관한 서적을 자신 있게 편찬,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시대 중국전적의 역주는 소위 ‘諺解’라는 명칭으로 굳어져 한중 번역학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은 建國 ‘三大國是’¹¹⁾ 중 유교, 특히 朱子學을 통치 이념으로 삼

3) 拙著 《朝鮮譯學考》 참조

4) 金指南 《通文館志》(1720) 沿革 및 科擧條 참조

5) 초기에는 漢學, 蒙學, 女眞學, 倭學이라 하였으며 뒤에 ‘女眞學’은 ‘淸學’으로 명칭이 바뀐다.

6) 拙稿 <朝鮮時代 外國語 敎學에 대한 一考>(1989) 참조

7)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漢字音 音節數는 469개이며 한글 표기 음절 가능한 한국어는 2350개나 된다. 따라서 한자음 음절로 한국어 음절을 모두 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8) 《龍飛御天歌》, 《訓民正音解例》 등

9)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등

10) 武經七書, 즉 《孫子》, 《吳子》, 《司馬法》, 《六韜》, 《三略》, 《尉繚子》, 《李衛公問對》 등이 후대에 언해되었음.

11) 조선의 건국에는 思想면에서는 ‘抑佛崇儒’, 외교 국방에 있어서는 ‘事大交隣’, 경제에

아 사회 전반이 유교적 가치관으로 일관되자 孔孟의 유학 관련 서적은 학자와 선비들의 필수 학문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科擧를 통과하기 위한 최우선의 학습 요소이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의 모든 규범과 가치기준이 이로써 결정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言文廳, 正音廳, 校正廳¹²⁾ 등을 두어 《小學》, 《四書》, 《七書》를 언해, 역주하였으며¹³⁾ 그 밖의 필요한 文學書¹⁴⁾는 물론, 實用書도 이에 맞추어 폭넓게 출판 보급이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대두와 함께 연구 대상은 폭이 넓어져 실용과 고증, 순수학문 자체에도 일생을 바쳐 연구하고 저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식자층에서는 이러한 학문 업적을 ‘諺文’이 아닌 ‘漢文’으로 기록하는 오랜 관습의 현시욕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지금 전하는 수많은 文史哲 문집 등은 난해한 한국식 한문으로 점철되어 있다.¹⁵⁾

Ⅲ. 韓國 歷代 中國 古典 譯註의 흐름

앞서 말한 대로 「訓民正音」 창제 이전에는 ‘譯註’라는 구체적 실물이 없었다.¹⁶⁾ 혹 ‘注’는 있으나 ‘譯’은 없었으며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보조로써 懸吐나 한문으로의 주석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그러나 문자가 창제된 조선시대 이후로는 經書를 위주로 한 각종 고전, 심지어 武經七書까지 폭

있어서는 ‘以農爲主’의 三大國是를 설정하고 있었음.

12) 正音廳은 世宗 28년 11월에 세웠다가 곧 폐지되었으나 文宗 때 다시 복원하였고, 校正廳은 宣祖 18년(1585)에 세웠음.

13) 《小學》과 《四書》는 宣祖 19년 校正廳에서 諺解를 마쳤으며 《七書》(四書三經)는 宣祖 21년 10월에 사업을 마쳤다는 기록이 보임.

14) 《分類杜工部詩諺解》가 成宗 12(1481)에 25권 19책으로 나왔으며 다시 仁祖 10년(1632) 重刊本을 출간함.

15) 《韓國文集叢刊》의 수많은 개인 문집은 모두가 한문으로 저술되어 있음.

16) 1934년 慶州에서 발견된 <壬申誓記石>을 보면 당시 중국 古典(經書) 연구가 활발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말로 익히고 학습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넓게 이해가 이루어졌고, 특히 宮中에서는 궁녀들의 독서 열풍에 부응하여 明清小說 등이 쉬운 諺文으로 번역되어 읽히기도 하였으며,¹⁷⁾ 그 외 교육용 蒙學書 및 史書들도 출현하였다.¹⁸⁾ 그러나 조선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체계적인 마무리를 거칠 겨를도 없이 서구 열강의 내침과 대한제국의 성립 등 혼란기를 거쳐 일제 강점의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 정체성이나 정통성을 갖춘 학문 연구는 기를 펴지 못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부 지식인들은 ‘儒敎經典講究所’라는 단체를 만들어 <儒敎經典諺譯叢書>의 출간을 서둘렀으나 겨우 《논어》를 발간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¹⁹⁾ 그리고 이 시기 일제의 朝鮮語 抹殺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의 역주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中國文獻을 도리어 일본을 통해 받아들이는 우회 수입의 시기가 되고 말았으며 나아가 일본이 정리한 전적과 교재가 정통인 양 보급되기도 하였다.²⁰⁾ 그럼에도 지방 私塾과 서당에서는 몽학교재, 이를테면 《千字文》, 《三字經》, 《明心寶鑑》, 《十八史略》, 《古文眞寶》 등은 지방관을 거둬하며 명맥을 이어나갔고 萬海 韓龍雲의 《榮根譚》이 講解 형식으로 출간된 예는 있다.²¹⁾ 이러한 암흑기를 맞아 해방을 맞았으나 자립의 몸부림이 안정을 찾기도 전에 좌우대립과 6.25의 전란을 거쳤고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거친 마분지에 신식 활자로 각종 고전 諺解書가 재판을 거쳐 등장하였다.²²⁾ 그러나 60년대 일본식 전집류의 붐을 타고 <世界思想大系>, <世界古典叢書>, <東西洋哲學思想全集>, <世界文學全集> 등의 이름으로 구색 맞추기 일본어판 重譯의 抄略, 解譯, 編譯, 縮譯의 형태로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안타깝게도 역자의 이름이나 지명도도 밝히지 않았고, 책임 역주가 아닌 베끼기 식이었다. 다시 1980년대 드디어 臺灣과 홍콩을 창구로 한 대륙의 중국 고

17) 궁중 諺文(諺解) 소설로 《三國志》, 《紅樓夢》 등이 있었음.

18) 《通鑑節要》, 《十八史略》, 《太平廣記》, 《明心寶鑑》 등

19) 大正 11년(1922) 洪憲, 尹喜求, 魚允迪, 申冕休, 呂圭亨 등을 중심으로 세워졌음.

20) 그 예로 <漢文大系>와 <漢籍國字解全書>(早稻田大學, 明治 40년) 등이 있음.

21) 大正 6년(1917) 新文館 발행 精選講義《榮根譚》

22) 이는 1960대 새로운 인쇄술과 다량의 출판사정에 따라 70년대에는 종로 뒷골목의 고서점에서나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 원전과 清代 考證學을 새롭게 출간한 서적들을 조금씩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가졌던 세대들이 줄어들고 新進 中國語 學習 世代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의 몇몇 출판사들이 중국고전총서를 기획하여 미지의 중국 대륙에 흥미를 더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나마 급한 나머지 일부는 우선 소개하기에 그치는 정도이거나 혹 책임 역주가 아닌 白話語 重譯, 완역이 아닌 경우, 註釋도 생략되거나 아예 原文까지 생략하고 출판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학자의 완역상주의 출간을 가로막는 부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좁은 출판 시장에 이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서명의 책’을 다시 중복 출간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느껴 ‘惡貨가 良貨를 驅逐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그 외에 또 다른 역주의 경우, 기존 노년층 한학자의 필진을 구성, 번역 문투는 물론, 편집조차 세로쓰기, 원문 표점 처리의 비과학적인 상태 등 참신성을 간과하여 독자층 확보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중국고전에 대한 한국인의 취향, 내지는 도덕, 교훈 교재일 것, 또는 고전은 곧 교양이며 긍정적이라는 등식의 막연한 기대에 또다시 몇몇 출판사들이 뛰어들었지만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성공한 책이면 검증 받은 것이라는 생각에 일본의 아류로 풀어쓰기 고전이 한 때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시 풀어쓰기 형태로 전환, 원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의역이나 평역으로, 나아가 주제는 處世術, 出世至上主義, 用人術 등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업적 접근을 시도한 예도 한 때 풍미하였다.²³⁾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당연한 흐름이었으며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중국고전 역주는 출판사의 상업적 판단에 의해 흐름이 진행된 면이 너무 강하였던 것이다. 이에 2000년대 純粹學問 振興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소위 ‘學術振興財團’(現 韓國科學財團)을 중심으로 ‘東西洋古典譯註支援事業’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3) 《孫子兵法》의 경우 서명만 같을 뿐 실제 고전 역주가 아니었음.

IV. 譯註 作業의 現況과 문제들

‘翻譯’과 ‘譯註’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번역’은 문자로 기술, 표현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의미가 소통하도록 하는 것임에 반해, ‘역주’는 번역의 단계를 넘어 그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타당성을 주석이나 기타 논증의 형식을 부가하여 밝히는 유형이다. 시공의 제한을 넘어 文史哲 등 논증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학문적 접근성이 명확해야 한다. 이처럼 번역은 다른 두 언어권의 대응작업이라면 역주는 시공을 포함한 상이한 언어권, 혹은 동일 언어권이라 해도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어 단순 번역으로는 완벽한 의미 파악이나 전달이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經’에서 ‘傳’으로²⁴⁾ 이어졌으며, 漢代 訓詁學으로, 다시 唐代 注疏로, 宋代 集註와 분석, 清代 校勘學, 校讎學, 校釋學을 바탕으로 한 考證學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금의 완전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나아가 이조차 다시 白話語로 번역하여 일반인들조차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그 과정은 참으로 긴 역사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를 다시 한국어로 옮기거나 주석하는 일은 이중삼중의 작업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學問의 成果나 所期의 目的을 이룰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일찍이 이런 작업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초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1) 중국 고대부터 청대, 現當代까지, 나아가 한국, 일본, 그 밖의 외국의 관련 자료와 작업 성과까지 섭렵하여야 한다. (2) 최근 백화어로 정리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원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문과 백화문을 동시에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3) 한어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언어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임을 전제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語順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逐字式 ‘位置變更不可’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24) 《博物志》 文籍考에 “聖人制作曰經, 賢者著述曰傳, 日章句, 日解, 日論, 日讀”이라 함.

한다. (5) 원문은 현대 중국식 문장부호와 표점처리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6) 중국 고전은 문사철 종합학문임을 전제로 역주해야 한다. (7) ‘闕如’의 개념을 인정해야 하며 가정은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어야 한다. (8) 卷, 冊, 篇, 章, 節, 文段을 數值化(digital)할 필요가 있다. (9) 중복 기록을 함께 모아 對照, 校勘, 考釋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0) 한국어 표현 능력이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²⁵⁾

이상 몇 가지 외에도 현실적으로 공구서의 활용, 전산화작업 정보의 취득, 기존 譯註書에 대한 檢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抄譯, 重譯, 編譯의 경우 이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참고한 문헌도 분명히 적시하여야 한다. 재인용을 밝히지 않고 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판본의 원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V. 「中國思想百選」出刊 緣起

필자는 1977년 臺灣 留學 시절 國立臺灣中央圖書館에 ‘朝鮮手抄本《世說新語》’²⁶⁾라는 도서목록을 보고 매우 흥미를 느껴 처음으로 소위 ‘譯註’라는 것을 시도해보았다. 당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고 학문적 소양도 지극히 낮아 의욕뿐이었다. 특히 당시는 전산화된 자료도 없었고 자료 활용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아 원시적인 작업형태였다. 그 뒤 다시 《戰國策》에 대한 작업을 서둘렀으며 귀국 후 1987년 이를 한국에서 처음 출간을 문의하였으나 日本에서의 출판 여부, 日本版 翻譯에 비중을 두던 시기라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抄譯으로 바꾸어 책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그쳤으며²⁷⁾ 그 뒤로는 古典과 관련이 없는 《廣開土王碑研究(好太王碑研究)》(1985), 《東北民族源

25) 이상 拙稿 <中國 古典 譯註의 現況과 連綿語 處理 問題>(2009) 논문 참조

26) 이는 劉孝標의 注까지 精密하게 手寫한 것이었음.

27) 이상 2책은 敎學研究社에서 각각 1984년, 1984년에 출간되었음.

流》(1992), 《龍鳳文化源流》(1994) 등을 번역 출간하였다.²⁸⁾ 그러다가 본격적인 古典 譯註 作業을 시작한 것은 《說苑》, 《晏子春秋》, 《西京雜記》, 《搜神記》에 대한 역주와 출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漢典大系>라는 거창한 총서를 기획하여 작업에 임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아 이조차 중단되고 말았다.²⁹⁾ 이에 날권 출간을 서둘러 《新序》, 《韓詩外傳》, 《唐才子傳》, 《增廣賢文》, 《神仙傳》, 《顏氏家訓》, 《幼學瓊林》, 《博物志》를 거쳐,³⁰⁾ 《四書集註(論孟庸學)》, 《詩品》, 《潛夫論》, 《老子》, 《列子》, 《明心寶鑑》, 《茶根譚》, 《戰國策》³¹⁾ 등을 이곳저곳에서 출간하게 되었으나 출판사들의 상업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구상했던 일관된 형태와 편집, 체재 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2006년 모출판사에서 기존출간도서는 물론, 원고가 작성된 모든 것, 아울러 계속 작업을 할 전적까지 모두 묶어 「林東錫教授의 東洋思想 100選」이라는 제목으로 叢書類로 모을 것을 기획하여 지금까지 이 작업을 그대로 이어 오고 있다. 이에 既出刊 도서와 편집 중인 완성 원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³²⁾

28) 《好太王碑研究》(王健群)은 力民社에서, 《東北民族源流》(孫進己)와 《龍鳳文化源流》(王大有)는 東文選에서 출간함.

29) 《說苑》, 《搜神記》, 《晏子春秋》, 《西京雜記》 등 4종이 東文選에서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중단되었음.

30) 《新序》(1999), 《韓詩外傳》(2000)은 藝文書院에서, 《唐才子傳》(2004), 《賢文》(2004)은 김영사에서, 《神仙傳》(2006), 《顏氏家訓》(2004), 《幼學瓊林》(2005), 《博物志》(2004) 등은 고즈원에서 출간함.

31) 《四書集註》(2004), 《詩品》(2003)은 學古房에서, 《潛夫論》(2004), 《老子》(2003), 《列子》(2003), 《明心寶鑑》(2003), 《茶根譚》(2003)은 建國大出版部에서, 《戰國策》(2002-04)은 傳統文化研究院에서 각각 출간함.

32) '100'이라는 숫자는 원래 '百種'이 아닌 '百卷(百冊)'으로 100권 정도 출간하면 상승효과를 얻으리라 기대한 것이었음.

<林東錫 中國思想 100選> 목록 및 출간 내용(韓國 東西文化社 出刊)

No	叢書番號	分冊	書名	分類	編撰(著)者	총쪽수	出刊日	備考
1	1-4	4	論語	儒家	南宋, 朱熹(集註)	1773	09.12.12	
2	5-8	4	孟子	"	南宋, 朱熹(集註)	1565	"	
3	9	1	中庸	"	南宋, 朱熹(集註)	252	"	
4	10	2	大學	"	南宋, 朱熹(集註)	262	"	
5	11	3	孝經	"	周, 曾子(曾參)	174	"	
6	12-14	3	國語	史學	周, 左丘明(?)	1381	"	
7	15-18	4	戰國策	"	漢, 劉向(撰)	1774	"	
8	19-22	4	史記列傳	"	漢, 司馬遷(著)	1742	"	
9	23-29	7	十八史略	"	元, 曾先之(編)	2886	"	
10	30-31	2	貞觀政要	"	唐, 吳兢(撰)	966	"	
11	32	1	西京雜記	"	劉歆(撰) 葛洪(輯)	382	"	
12	33	1	洛陽伽藍記	地理	北魏, 楊銜之(撰)	532	"	
13	34-38	5	說苑	儒家	漢, 劉向(撰)	2428	"	
14	39-40	2	新序	"	漢, 劉向(撰)	901	"	
15	41-43	3	韓詩外傳	"	漢, 韓嬰(撰)	1237	"	
16	44-46	3	孔子家語	"	魏, 王肅(撰)	1309	"	
17	47-48	2	潛夫論	"	東漢, 王符(著)	926	"	
18	49-50	2	顏氏家訓	"	北齊, 顏之推(著)	718	"	
19	51	1	老子	道家	周, 李耳	355	"	
20	52-53	2	莊子	"	周, 莊周	837	"	
21	54	1	列子	"	周, 列禦寇	576	"	
22	55-56	2	晏子春秋	儒家	編者未詳	790	"	
23	57-58	2	列女傳	"	漢, 劉向(撰)	805	"	
24	59	1	神仙傳	道家	晉, 葛洪(撰)	464	"	
25	60	1	孫子	兵家	周, 孫武(撰)	256	"	
26	61	1	吳子	"	周, 吳起(撰)	208	"	
27	62	1	尉繚子	"	周, 尉繚(撰)	304	"	
28	63	1	司馬法	"	周, 司馬穰苴(?)	144	"	
29	64	1	六韜	"	周, 呂尚(?)	288	"	
30	65	1	三略	"	秦, 黃石公(?)	208	"	
31	66	1	李衛公問對	兵家	唐, 李靖(撰)	272	"	
32	67	1	三十六計	"	編者未詳	224	"	
33	68-70	3	小學	蒙學	宋, 朱熹(編)	1110	"	
34	71	1	千字文	"	南朝(梁), 周興嗣(編)	628	10.06.01	

No	叢書番號	分冊	書名	分類	編撰(著)者	총쪽수	出刊日	備考
35	72	1	三字經	"	宋, 王應麟(撰)	316	"	
36	73-75	3	百家姓	"	編者未詳	1213	"	
37	76-80	5	蒙求	"	唐, 李瀚(撰) 徐子光(註)	2030	"	
38	81-83	3	幼學瓊林	"	程登吉(明) 鄭聖脈(清)	1320	10.11.31	
39	84	1	昔時賢文	處世	明, 編者未詳	576	"	
40	85-86	2	明心寶鑑	"	明, 范立本(編)	1056	"	
41	87-88	3	榮根譚	"	明, 洪自誠(撰)	800	"	
42	89-90	3	格言聯璧	"	清, 金櫻(撰)	800	"	
43	91-93	3	唐詩三百首	文學	清, 孫洙(撰)	1136	10.12.12	
44	94-95	2	千家詩	文學	宋, 謝枋得(外)	704	"	
45	96-98	3	唐才子傳	"	元, 辛文房(撰)	1344	"	
46	99-100	2	陶淵明集	"	晉, 陶淵明	816	"	
47	101-104	4	世說新語	文學	南朝(宋), 劉義慶(撰)	1934	"	
48	105-107	3	搜神記	"	晉, 干寶(撰)	1501	"	
49	108	1	博物志	"	晉, 張華(撰)	622	"	
50	109	1	詩品	"	南朝(梁), 鍾嶸(撰)	366	"	★ ³³⁾
51	110	1	列仙傳	道家	漢, 劉向(撰)	460	출간예정	
52	111	1	人物志	儒家	三國(魏), 劉邵(著)	520	"	
53	112	1	書譜	藝術	唐, 孫過庭(著)	431	"	
53	113	½	公孫龍子	名家	周, 公孫龍	124	"	
54	"	½	鄧析子	"	周, 鄧析	87	"	
55	114	½	尹文子	"	周, 尹文	98	"	
56	"	½	慎子	法家	周, 慎到	153	"	
57	115	1	二十四孝	蒙學	編者未詳	327	"	
58	116-118	2	帝鑑圖說	教育	明, 張居正(撰)	1243	"	³⁴⁾
59	117-119	3	山海經	"	晉, 郭璞(注)	1423	"	
60	120	1	申鑑	儒家	漢, 荀悅(撰)	324	"	
61	121	1	新語	儒家	漢, 陸賈	327	"	
62	122	1	恥言	"	明, 徐禎稷(撰)	411	"	
63	123	1	皇帝內徑	道家	編者未詳	456	"	
64	124	1	文子	"	周, 文子(辛妍)	520	"	
65	125-126	2	新書	儒家	漢, 賈誼	734	"	
66	127	1	高士傳	傳記	晉, 皇甫謐(撰)	487	"	
67	128-137	10	春秋左傳	經學	左丘明, 杜預(注)	?	출간대기	
68			高僧傳		南朝(梁), 慧皎(撰)		"	

No	叢書番號	分冊	書名	分類	編撰(著)者	총쪽수	出刊日	備考
69			春秋繁露		漢, 董仲舒(撰)		"	
70			大戴禮記		漢, 戴德(傳)		"	
71			越絕書		未詳		"	
72			吳越春秋		東漢, 趙擘(撰)		"	
73			春秋左傳		左丘明(?)		"	
74			禮記		漢, 戴聖(傳)		"	
75			華陽國志		晉, 常璩(撰)		"	
76			呻吟語		明, 呂坤(撰)		"	
77			商君書		周, 商鞅		"	
78			古詩源		清, 沈德潛(撰)		"	
79			大唐西域記		唐, 玄奘		"	
80			近思錄		宋, 朱熹		"	
81			東萊博議		宋, 呂祖謙		"	
82			尸子		周, 尸佼		"	
83			明夷待訪錄		明, 黃宗羲		"	
84			鬼谷子		戰國, 鬼谷子		"	
...	계속진행							

VI. 叢書 執筆의 方向과 內容

1. 體裁

총서의 체제는 모든 책을 가능한 한 동일한 구성을 시도하였다. 즉 머리말 →일러두기→해제→목차(세목)→분권(분책)에 따른 표지→일련번호(권장번호)와 소제목(한글풀이 병기)→해석문→원문(표점정리)→주석→<참고 및 관련자

33) ★표 까지 2011년 6월말 현재 50종 109책이 출간되었으며 이하는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34) 《帝鑑圖說》의 경우 2011. 6. 15일 총 823쪽 분량으로 고즈원출판사에서 출간되었음.

료>→책 뒤(부록이나 혹은 종합자료) 순이다. 해제에는 책의 成書過程과 내용, 撰著者의 전기, 판본의 전래와 역대 주석, 고대 이래 관련 문헌과 類書類에의 소재 여부, 朝鮮시대 수입이나 간행 여부, 중국에서의 주석본이나 백화어 판본, 일본이나 기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등 관련된 사상을 소상히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러두기’에는 편집 및 집필 내용과 구성, 참고문헌 등을 실었으며 고대 판본 사진자료, 특히 <四庫全書>, <四部備要>, <四部叢刊>, <百子全書>, <叢書集成> 등 유서류를 일일이 찾아 그 일부를 사진으로 싣고 관련 화보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차에서는 원책의 분권, 분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장, 분절도 원서를 기준으로 하되, 원서에 구분이 없을 경우라 해도 필자가 합리적이라 여기는 분량이나 문단을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제목을 원문으로 싣고 간단히 한글 풀이를 병기하였다. 아울러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전체 고유의 일련번호를 제시하고 혹은 괄호 안에는 하위분류 번호를 병기하여 효과적인 검색과 편집, 인용 등에 최대한 편리하도록 시도하였다.

2. 本文의 構成

본문의 일련번호와 괄호 안의 하위분류번호 다음에 제목을 제시하였다. 원 제목이 있을 경우 당연히 이를 밝혔으나³⁵⁾ 일부 임의로 소재목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어서 해석 문장을 넣고 원문을 제시하되 중국식 표점정리한 문장이며 그 다음으로 주석을 부기하되, 여기에는 작은 숫자 번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문의 양을 줄여 解釋文이나 原文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편 주석은 人名, 地名, 事件名, 概念이나 의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긴 주요 御諱, 해석의 논거를 밝히기 위한 구절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어학적 해결로 처리해야 할 ‘連綿語’ 등도 다루었다.³⁶⁾ 판본 간의

35) 《西京雜記》, 《晏子春秋》 등처럼 원래 소재목이 있는 경우 당연히 임의로 분장하지 않음.

문자 차이는 일부 밝혔으나 이는 전적으로 <참고 및 관련자료>난에 동일 문장의 다른 기록을 제시하는 만큼 그의 몫으로 하였다.

3. <參考 및 關聯 資料>난의 설정

다음으로 모든 책에 일관되게 <참고 및 관련자료>난을 설정하였다. 이는 필자의 역주 작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부분이다. 중국 고대 기록은 흔히 서로 引用, 轉載, 援用, 再解釋 등으로 소위 ‘你抄我, 我抄你’의 현상이 아주 일반화되었었다. 이를테면 女人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하면 《列女傳》이라는 제목 아래에 《史記》, 《說苑》, 《晏子春秋》, 《左傳》, 《國語》, 《戰國策》, 《孔子家語》 등 헤아릴 수 없는 기존의 典籍에서 관련 기록을 모아 이를 轉載, 혹은 附加, 再構成 등의 방법으로 책을 저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다른 類書類는 물론, 이미 있던 기록이 또 다른 곳에도 전재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뒤에 이를 인용, 전제한 중복기록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 이를 찾아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써 비교 연구에 큰 도움이 되며 아울러 문장의 상호 對照, 校勘, 校讎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³⁷⁾ 지금은 마침 電算의 발달로 이들의 檢索과 複寫가 매우 용이하지만 초기 작업에는 이를 찾아 다시 입력하는 일이 전체 작업분량의 70-8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동일 기록을 원문대로 나열함으로써 주석의 분량을 줄일 수 있고 연구자에게 다시 다른 기록을 찾아 대조하거나 校釋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36) 특히 雙聲, 疊韻 連綿語의 경우, 언어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註釋의 고통을 輕減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임.

37) 이를테면 《搜神記》(14) 342(14-3) 「夫餘王」에는 《廣開土王碑》, 《三國史記》, 《後漢書》, 《魏略》, 《論衡》, 《梁書》, 《周書》, 《北史》, 《隋書》, 《藝文類聚》, 《淵鑑類函》, 《滿洲源流考》, 《帝王韻記》, 《東明王篇》, 《事類賦注》, 《獨異志》 등 韓中 資料에서 무려 18곳에서 같거나 관련된 기록이 실려 있으며 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 전재하여 나열함.

매우 합리적이며 편리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단락의 번호 부여→원문의 표점 정리→각주의 합리적 처리→참고 및 관련 자료의 제시 등 정형화된 구성은 기계적 작업에 유리하였고, 아울러 학문적 논증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4. 附錄 部分

부록에는 역대이래 관련 序跋이나 提要, 傳記, 校勘資料 등을 신고 板本이 희귀하거나 대조가 필요한 경우 직접 영연하여 신기도 하였으며, 혹 역사적 맥락이 필요할 경우 年表나 역대 朝代別 世系表를 함께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채 전체에는 삽화나 관련 그림 자료, 서예가의 名句, 名文 관련 글씨, 혹 역대 관련 그림이나 인물상 등을 여러 참고 문헌, 화보, 화첩을 이용하거나 《三才圖會》 등을 근거로 곁들여 실어 시각적인 효과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VII. 結言

‘번역’은 제2의 창작이며 아주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고전 역주’는 文史哲 각 방면의 학문적 교차 검증을 거쳐야 비로소 원만한 학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2, 제3의 다음 단계 연화된 창작물이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 번역은 주된 도구가 언어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정밀한 역주는 관련된 많은 학문의 자료축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중국 고대 전적은 지금처럼 학문이 분화된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고차원적인 融畧과 溶解 상태에서 온갖 분야의 내용물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수 천년을 두고 訓詁,

註釋, 考證을 거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역주 단계에 이르러 정확한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고전 역주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중국 고전 역주는 소위 ‘한문 실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며 시대 배경과 문맥의 흐름, 주변 학문의 인지, 諸子學派의 主義主張, 나아가 고대 저술자들의 개별적 표현 技法, 당시 사회의 풍조는 물론, 民俗과 地理, 인물끼리의 관계, 生沒의 선후 등 수없이 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가능하다. 아울러 아무리 중국 고전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言語를 바탕으로 한 위에 文字로 기록되었음을 前提로 해야 한다. 그 때문에 文字學, 音韻學, 訓詁學 등 소위 ‘小學’조차 섭렵하지 않고는 자칫 ‘望文生義’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간혹 한국 노년층 한 학자의 경우 백화어를 모를뿐더러 한자를 낱자별로 지나치게 신성시하여 ‘逐字 解釋’만을 고집하며 온갖 고통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된다. 아무리 한자라 해도 그 당시 ‘언어를 기초로 기록은 문자로 한 것’임을 간과한 까닭이다. 나아가 페이지도, 문단구분도, 띄어쓰기도, 표점 부호도 없이 세로쓰기의 답답한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현대 상황에도 이상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이며, 합리적인 구성과 편집, 집필 원칙을 세워 학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 고전을 역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번역과 意譯, 나아가 새로운 창조를 통해 再構成되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譯註’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의 다리이며 그 다리가 정확하고 튼튼해야 강 건너 다음 세계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林東錫 <中國 古典 譯註의 現況과 連綿語 處理 問題> 中國論譯叢刊 2009, 서울
林東錫 <朝鮮時代 外國語 教學에 관한 一考> 建國大 <學術誌> 33집 1989, 서울
林東錫 <<朝鮮譯學考>> 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3, 臺北
金指南 <<通文館志>>(1720) 影印本
林東錫 <<中韓對比語文論>>(上下) 韓國文化社 2003, 서울
林東錫教授의 「中國思想百選」叢書 東西文化社, 2010, 서울
<<四書栗谷諺解>> 成均館大學校 養賢齋(影印本) 1976, 서울
<<四書諺解>>(陶山書院 藏本) 大提閣(影印本) 1976, 서울
<<分類杜詩諺解>>(重刊本) 필자 소장
<<十八史略>> 朝鮮時代 板本 필자 소장
<<經書>>(世宗 甲寅字) 內閣本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영인 1965, 서울

<Abstract>

The Situation and Problem of Chinese Classics Translation and Comment in Korea

Lim, Dongseok

This paper was “New Vision of Chinese-Korean Translation Study” originally announced i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f Chinese-Korean Translation Education』 which Korean Language-Culture Research Institute of China Peking University conducted on Jan-8, 2011. In addition, writer revised and corrected it.

First, examine the meaning and classification of oral translation, written translation and adaptation.

There is no way which we know how to translate before ‘Hunminjeongeum’ invention in Joseon Dynasty. However after ‘Hunminjeongeum’ invention, translation developed to 2 direction. that is oral-translation and written-translation. In oral-translation, first, Sayukwon and Seungmunwon established. Second, the 4 language of Chinese, Yejin language, Mongolian and Japanese built up. Third,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ranslator promotion system organized. Up to now, teaching materials such as 《Logeldae》, 《Paktongsa》 remained.

In written-translation, Joseon Dynasty started to translate Confucianism scripture(Sase) and literary works(《Dusiyoenshe》). Also translated textbook such as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Sazakyung》, 《Myungsinbogam》. There is big achievement.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1950's Korean War(6·25) we have no translation. In the Cold War period, we have to carry out cultural exchange only with Taiwan, Hongkong, because there is no way to associated with China. At that time, we were influenced by Japan. In 1980's every university started to set up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In 1992,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formally.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come more active.

The writer of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Chinese Classics translation and comment from 1970's. Writer plan to publish 「Professor Im, Dong-seok's Chinese

Classics 100 works」, already published 109 volume of book in 50 classification. In the future, writer plan to press 70 volume of book in 40 classification. Writer explained the press motive of series books, the process and difficulty of translation, the writing direction, the system, the feature, the academic recognition based on this situation.

The sinology of Korea need to raise his ability to higher level through Chinese Classics translation and comment. The higher level is the route of analysis, application and development.

Key Words : Chinese Classics translation and comment, Process of translation and comment, Professor Im, Dong-seok's Chinese Thought 100 works,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in Joseon Dynasty

투 고 일 : 2011. 9. 10. / 심 사 일 : 2011. 9. 26. ~ 2011. 10. 10. / 게재확정일 : 2011. 10. 20.